



[뉴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승인 지역에
미래 경쟁력 제동
02



m-커버스토리



샤오미가 개최하는 미 팬 페스티벌.

/샤오미

충성 고객 잡아라 팬덤 마케팅 강화

전자업계 생존전략

샤오미는 최근 국내에서 신제품을 대거 출시했다. 태블릿인 샤오미 패드5와 무선 이어폰 레드미 베즈3 프로를 비롯해, 안드로이드 TV와 무선 진공청소기, 게이밍 모니터와 에어프라이어까지다. 모바일뿐 아니라 생활가전, 주방 가전으로도 국내 시장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업계는 샤오미 신제품 발표를 삼성전자 언팩 때와 같이 아이폰13 공개에 맞춰 모바일을 새로 내놓고 브랜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펼쳤다.

샤오미, IoT 생태계 확대 속도 성장동력 '미팬' 마케팅 강화
자발적 홍보·개발 동참 등
각국 커뮤니티서 활발 활동

이른바 '친물 끼얹기' 전략. 그러나 실제 발표한 제품은 모바일 뿐 아닌 가전 제품 중심, 샤오미는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는 목표도 숨기지 않았다.

샤오미는 사물인터넷(IoT)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소개했다. 자체 생산 제품은 물론, IT 기기와 소형 가전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 스타트업까지 협력해 샤오미로 연동되는 제품을 대폭 넓힐 것이다.

샤오미는 일찌감치 같은 전략을 펼쳐왔다. 2010년 설립 당시만해도 안드로이드 커스텀롬인 'MIUI'를 개발하는데 불과했던 소프트웨어 회사였지만, 모바일보다 생활가

전을 중심으로 제품군을 늘리며 일상 생활 곳곳에 '샤오미'라는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 가성비를 추구하는 중국산 제품이 마치 대명사처럼 '샤오미'라고 불리는 데도 이런 마케팅 영향이 커졌다.

'미팬'은 그렇게 커졌다. 미팬은 샤오미의 팬을 뜻하는 말로, 샤오미 생태계를 지지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중국에서는 미팬이라고도 불린다. 현지에서는 샤오미 홈페이지에 개설된 커뮤니티에서 볼 수 있으며, 중국이 아닌 국가에서도 각국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제품을 구매하고 리뷰하거나 개선점을 제안하고, 심지어는 업그레이드 방법을 개발하며 샤오미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미팬은 샤오미 성장에 핵심 원동력이다. 단순히 샤오미 제품군을 구매하고 확장하는 것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홍보와 개발에도 동참하며 발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샤오미 글로벌 행사마다 미팬을 언급하며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샤오미가 화웨이의 빙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미팬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과거에는 중국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화웨이를 지지했지만, 화웨이가 자리를 비운 다음에는 탄탄한 생태계를 구축한 샤오미에 기대게 됐다는 것.

샤오미의 팬 마케팅이 전자 업계 처음은 아니다. 샤오미의 롤모델은 바로 애플. 첫 출시작인 MIUI가 안드로이드에서 애플을 재현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기를 얻었었다.

(4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전년비 21% 성장... '연 40억 상자' 기대감

<2020년>

물류, 미래로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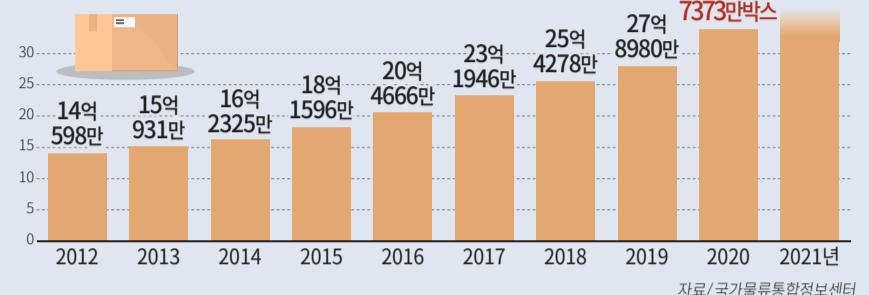
택배시장

코로나19가 물류시장을 바꿔놓고 있다. 물류의 한 축인 택배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며 급성장하고 있다. 물류·유통산업과 융합을 시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코로나19로 더욱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동수단'을 일컫는 모빌리티와의 시너지도 가속도가 붙었다. 메트로신문은 오는 28일 개최하는 '제6회 물류&e-모빌리티 포럼'을 앞두고 관련 분야 이슈를 3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주〉

국내 택배시장 규모가 올해 '연 40억 상자'를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면거리, 생필품 등의 온라인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며 지난해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 추이



자료/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택배시장이 1년전에 비해 무려 21%나 성장한 가운데 올해에도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택배가 일상으로 확실하게 자리잡고, 물류·유통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어 택배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 관측이다.

2012~2013년 당시만해도 국내 택배 물동량은 연간 14억~15억 개 수준이었다.

23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

면 올해 1월부터 5월사이 국내 택배 물동량은 14억 6392만 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택배상자 13억 1270만개에 비해선 11.5% 늘어난 수치다. 택배를 중심으로 한 생활물류 통계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집계하고 있다.

국내 택배시장은 코로나19가 본격화 한 지난해엔 33억 7373만개로 전년도의 27억 8980만개보다 약 5만 8000개 (20.9%)나 늘었다. 〈8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하킴 공군기지 19번 격납고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서 유해 관포 교체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

"'헝다 리스크' 연말까지 계속된다"

헝다, 일부 사채이자 지급 발표
미국 등 글로벌 주요 증시 반등
증권업계 "리스크, 당분간 지속"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도래한 사채이자 지급 발표로 글로벌 증시가 안도하는 모습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증시가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했다. 한국 증시도 추석 연휴 이후 개장한 23일 주식시장에서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 상하이종합지수도 전날보다 0.38% 오른 3642.22

로 장을 끝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코스피는 지난 주말보다 12.93포인트(0.41%) 하락한 3127.58에 장을 마쳤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2일(현지시간) 전날보다 1.00% 오른 3만 4258.32로 장을 끝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헝다는 전날 성명을 통해 2025년 9월 만기 위안화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장외 방식의 협상을 통해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헝다그룹 리스크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자 지급 기한이 연말까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5억 3000만 달러에 달하는 달러 채권 이자 지급이 예정돼 있는 만큼 헝다그룹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리스크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3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최재형, 판사 재직 당시 대장동 로비 의혹 변호사 '2심 무죄' 선고
- ▲ 野 대장동 공세… 이재명, 與 후보 공동대응 제안
- /사진 뉴시스

- ▲ 여야 선두권, 오차범위 내 '훈전'… 4%p대 접전
- ▲尹 측, 김건희 '전시 협찬사 증가' 의혹에 "총장 지명전 일"



- ▲ 심상정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 특임 검사가 수사해야" 촉구
- ▲文 "중전선언, 걸돌아서 다시 제안… 국제사회도 공감"
- /사진 뉴시스